

세계 정상급 출연진·3차원 영상 접목 광주서 만든 오페라 '아이다'는 어떨까



고현아



호르야네스 아이비지안



산야 아나스타샤

홀로그램과 3D 맵핑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이 가미된 오페라 무대는 어떤 모습일까.

광주시립오페라단(예술감독 정갑균)이 지난해 8월 창단 이후 첫 번째 정기공연 오페라 '아이다'를 무대에 올린다. 4월 6일 오후 7시30분, 7일 오후 3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오페라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첫 정기공연인 오페라 '아이다'에 대한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정갑균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을 수놓았던 홀로그램 기법과 맵핑을 오페라 무대에도 도입해 선보일 것이다"며 "가장 현대적이고 미학적인 무대를 만들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아이다'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르디의 후기 대표작 '아이다'는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이집트의 대장 라다메스와 포로인 에티오피아의 공주 아이다와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성악 및 관현악뿐 만 아니라, 합창과 발레의 비중을 높여 화려한 무대와 볼거리를 자랑하는 오페라다.

1막 라다메스가 부르는 '정아한 아이다'와 아이다의 노래 '이기고 돌아오라', 제2막 제2장 '개선행진곡' 등이 유명하다. 라다메스, 암네리스가 빛어내는 세 개의 2중창은 전체 테마를 아우르는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꼽히고 있다. 아이다와 암네리스가 벌이는 2막 1장의 2중창, 아이다와 라다메스가 부르는 3막 2중창, 암네리스와 라다메스가 벌이는 4막 1장의 2중창 또한 배역 간 갈등이 선율을 고스란히 담겨 감동을 자아낸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4번이나 '아이다'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광주에서 선보이는 '아이다'는 각오부터가 남다르지요."

정 감독은 지금껏 보지 못한 대규모 공연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제작비 5억5000만원을 들인 이번 공연에는 지난해 3월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33명의 광주시민합창단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합창

광주시립오페라단 창단 첫 공연 4월 6~7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합창·발레 강화 볼거리 다채 아나 루크레치아·고현아 출연 정갑균 감독 "전에 없던 무대"



단 등 92명의 합창단원이 참여한다. 게다가 광주시립발레단의 단원 27명도 합류했다. 공연에 등장하는 연기자도 40여 명에 이른다. 이밖에 오페라 전문 연주단체인 디오 오케스트라도 무대에 오른다.

또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음악원 교수 이바울 크린체프의 지휘와 함께 전세계에서 활동중인 성악자들이 무대에 선다. 총 2회 공연에 주요 배역이 더블 캐스팅이 돼 각각 색다른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아이다 역은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에서 인정 받은 아나 루크레치아와 빈 슈타츠 오페라에서 동양인 최초로 주역활동을 하고 있는 고현아가 맡았다.

라다메스 역은 이탈리아 아레나 디 베로나의 오페라 '아이다'에 출연한 호르야네스 아이비지안과 뉴욕 메트로폴리탄이 인정한 테너 신상군이 맡았다. 암네리스 역에는 이탈리아 아레나 디 베로나의 오페라 '아이다'의 주역 산야 아나스타샤가 출연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공개오디션을 통해 미리 출연을 확정지은 배우들도 있다. 광주·전남지역 출신의 성악가 최승필, 이집트 왕 역의 김일동, 흥 일 이 선발돼 무대에 선다.

정 예술감독은 "광주·전남의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캐스팅했다"며 "신인배우들한테는 무대가 스승이다. 배우들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인배우들도 캐스팅했다"고 말했다.

또 공연에 앞서 4월6일 오후 1시 10분, '아이다' 정복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언더캐스팅으로 주역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해온 임경아, 정세영, 윤승환, 이하석 배우들이 오픈 리허설을 통해 공연보다 앞서 시민들과 만난다. 오픈리허설을 관람하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아이다 역을 맡은 소프라노 고현아는 "고흥출신이라 광주에서의 공연이 뜻깊다"며 "시민들로 하여금 '오페라를 또 보고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무대를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휘를 맡은 이바울 크린체프도 "광주시립교향악단의 공연에도 참여한 적이 있어 광주와의 인연은 깊다"며 "이러한 완벽한 대작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다. 최선을 다해 무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예술감독은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들은 고대 이집트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많은 시민들이 '아이다'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V석 7만 원,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1만 원. 문의 062-613-8247.

/전문기자 ejf621@kwangju.co.kr

손에 잡히는 인문 누리집 '인문360도' 새단장

책 소개·동네 인문지도 등 신설 개편 기념 '한줄인문' 공모전도



'인문360도' 갈무리 화면.

우리 동네 갤러리에서 내가 원하는 인문학 강연을 듣고 싶다면? 우리 지역 독립서점 주인이 추천하는 인문 공간이 알고 싶다면?

손에 잡히는 인문 서비스 '인문360도' 누리집(inmun360.culture.go.kr)에 접속하면 다채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15년 말 '날마다 새로운 생각, 날마다 새로운 관점'을 모토로 만들어진 '인문360도' 누리집은 매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15개 분야 전문가들의 칼럼, 공간 정보, 미디어, 행사 정보 등을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인문정신문화 온라인 서비스 '인문360도' 누리집이 새 단장을 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역인물, 공간정보 등 생활과 밀접하게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일장 '한줄인문', 출판사가 직접 하는 책 소개(북트레일러), 우리 동네 인문지도 등의 코너를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테마갤러리'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칼럼, 인터뷰, 영상, 관련 전시·책·공간정보 등을 모아 한 번에 보여주는 추천 서비스다. 다양한 곳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주제에 맞춰 재가공하고 엮어서 제공한다.

또 다른 신규 코너인 '인물유랑'은 한국지역 출판문화발전재단 등과 협업해 평범한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소개한다.

오는 5월부터는 가칭 '골목콘서트'도 시작된다. 인문정보에 등록된 공간 중 한 곳을 골라 원

하는 인문학 강연이나 작가와의 대화 등을 신청하면 매월 한건씩 선정해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

이번 개편을 기념해 4월 1일까지 '초간단 공모전'을 연다. '변화에서 시작하는 생각'이라는 주제로 '한줄인문' 코너에 글귀를 남기면 높은 공감을 얻은 작품을 캘리그래피로 제작해 인문360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 외에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영화예매권을 제공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살 속에서 사람의 무늬(人文)를 찾는 것이 인문360도의 지향점"이라며 "휴대전화로도 쉽게 볼 수 있어 바쁜 현대인이 일상에서 잠시나마 생각을 하게 하는 유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삼국시대 군사거점 '강진읍성'...내일 학술회의

강진읍성(전남문화재자료 233호)은 조선시대 전형적인 평산성으로, 보은산 남쪽자락에 있던 옛 고현산성과 평지인 시가지 일부를 연결해 축조됐다. 백제 동용현의 치소(감영)이 있던 곳으로 조선 성종6년(1475) 현재 자리로 옮겨와 10월에 축조됐다. 현재 읍성은 효종 2년(1651) 개축 당시 때의 모습으로, 천년 이상을 강진현의 치소로 이용돼 왔다.



강진읍성 발굴 현장 모습.

강진읍성에 대한 학술자문회의가 개최된다. 전남문화관광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는 강진읍성 시굴·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및 현장설명회를 오는 23일 오후 14시 30분에 강진읍성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자문회의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강진읍성의 축조방법 및 시기, 내·외부 관련시설의 유무,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지

역민을 위한 현장설명회도 진행한다. 이번기 전남문화재연구소 소장은 "강진읍성은 지정학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삼국시대부터 치소로 이용됐을 뿐 아니라 왜구를 방어하기 위한 중요한 군사거점 지역이었다"며 "이번에 처음 실시된 강진읍성의 조사 성과가 갖는 의미는 자못 크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Aroma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아닙니다. 니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 편안하면서도 탄성GOOD! 흡발습GOOD!
부위별로 특별하게 |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 일본 도레이社 LYCRA | 발단면역각형사용

www.aroma-life.co.kr

1588-2219